

2023. 7. 2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20일 오후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2133-7480
자활시설팀장	기재일	2133-7489
담당자	이신옥	2133-7491

사진없음

사진있음
(추후 배포)

쪽수 : 9쪽

쪽방주민 수요맞춤형 동행스토어 개소... 이젠 줄서지 않아요!

- 서울역 쪽방상담소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개소...20일 개소식·8월 1일 운영시작
- 오세훈 시장, 동행스토어 상품 구매해서 쪽방주민 방문...폭염대책 등 여름철 안부 물어
- 세븐일레븐, 월 1천만원 상당 물품후원, 세븐카페·세븐팝 지원 등 3년 협약
- 현행 선착순·일률적 배부 및 줄세우기 관행 개선, 회원한정 적립금으로 물품구매

쪽방상담소에서 하는 일의 하나가 기업이나 자선단체에서 보내 온 지원품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문제는 지원품을 나누어 줄 시간을 정하면, 물품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다. 여름에는 무더운 땀벌에서 땀을 흘려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기다렸다. 다들 한두 시간 고생하는 것 보다, 굴욕적인 모욕감을 더 못 견뎠다. 그런데, 이젠 '동행스토어' 를 차려 본인이 필요할 때 한번씩 들러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오랜 줄세우기 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빈민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준 상담소와 서울특별시의 '아름다운 동행' 사업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동자동쪽방촌 주민작가 조문호, 블로그 中에서

-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필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가 운영에 들어간다.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온기창고' 개소식에 참여 후 쪽방주민을 방문해 침수피해는 없었는지, 폭염시 안전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서울시가 20일(목) 오후 2시 동행스토어 ‘온기창고’가 개소식을 열고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용산구 후암로 57길 3-14)
 - 동행스토어는 쪽방주민을 위한 수요맞춤형 물품배분 시스템이다.

-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개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 이재훈 온누리복지재단 이사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유만희 부위원장, 쪽방주민 등이 참석한다.
 - 개소식에서 서울시와 세븐일레븐은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다. 세븐일레븐은 ‘온기창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월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한다.
 - 협약식 이후에는 개소를 축하하는 기념수 소원달기와 제막식 행사를 하고 내빈들은 동행스토어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물품을 대신 구매해서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 쪽방촌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꼽는 것은 ‘생필품 지원’이다. 지금까지 쪽방상담소는 협소한 공간과 인력부족, 확보한 물품의 부족 등으로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후원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날짜를 정해 선착순으로 배부하였다.
 - 선착순으로 물품을 배분하는 날은 쪽방촌 주민들이 일찍부터 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줄을 서서 생필품을 지원받는 방식은 주민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품을 중복 수령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건강취약자·노약자들이 배분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 이에 서울시는 줄서기 방식을 없애고 쪽방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필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은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이다.

- 이런 생각은 2022년 10월 오세훈 시장이 「쪽방촌(주민)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처음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
- 이후 서울시와 쪽방상담소들의 회의를 거치며 기존 푸드마켓 사업과 혼동을 피하고,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로 명명하게 되었다.
- 온기창고 이용 대상 주민은 쪽방상담소 등록 회원으로 회원(적립금)카드를 발급받은 주민이며, 월 10만점(point)의 적립금만큼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여름철마다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 물품을 후원하던 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이 사업취지에 크게 공감하여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하여 온기창고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 세븐일레븐은 3년간 월 1천만원 상당 물품후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인 ‘세븐카페’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세븐카페 운영 수익금은 온기창고 운영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 대부분 1인 가구로 균형잡힌 식사가 부족한 쪽방촌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온기창고에는 과일이나 두부 등 소용량 신선식품 ‘세븐팜’ 상품을 주로 후원하기로 하였다.

□ 온기창고는 생필품을 따로 보관할 수 없는 비좁은 쪽방 환경을 고려한 창고형 매장으로, 대형 냉장·냉동고 등의 기자재를 넉넉히 준비했다. 그리고 물품은 품목별로 진열하고, 편의점과 같이 POS(상점의 전자식 금전등록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 또한 상시 개관을 목표로 주 3회 이상 운영되며, 전담인력 1명(매니저)과 참여주민 2명(공공일자리)이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다.

- 한편, 오세훈 시장은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개소식 후,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대신 구매해서 가정방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쪽방촌에 침수피해는 없는지, 앞으로 다가올 폭염 시 안전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점검했다.

- 이날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동행식당이나 온기창고는 다시 원상 복귀되지 않을 것이다”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스템 체계를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이렇게들 좋아하시는데 다시 원상 복귀시킬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변화를 원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도와주신 분들께 전달해주시면 제가 늘 신경 쓰면서 챙기겠다”고 밝히며, 동행식당, 온기창고 등 새로운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원상으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20일 오세훈 시장이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으로부터 '마음을 모아 약자와의 동행' 글을 전달받은 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용산구 동자동 온기창고에서 쪽방촌 주민에게 전달한 여름나기 물품을 고르고 있다.

붙임 1 서울역쪽방상담소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개소식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3. 7. 20.(목) 14:00
- 장 소 : 서울역쪽방상담소 동행스토어 (용산구 후암로57길 3-14, 1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 협약: 세븐일레븐 / 운영: 온누리 복지재단

[협약] ① 서울시: 총괄기획 ② 세븐일레븐(주): 월 1천만원 상당 물품, 세븐커피, 세븐팜(신선식품) 후원

- 참석대상 : 30여명(서울시, 협약기관, 운영기관 관계자, 쪽방주민 등)

✓ 주요참석자: **서울특별시**장,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온누리복지재단 이사장

- 주요 내용 : 협약식(인사말씀), 제막식 및 시찰, 여름나기 물품전달(가정방문)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5	15'	협약식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인사 말씀(4분) 추진경과 보고(ppt) 협약서 서명 및 기념수 소원카드 달기, 기념촬영	동행스토어 행사장 사회(전익형 실장) 보고(유호연 소장)
14:15~14:30	5'	제막식	제막식 및 현판 부착, 기념촬영	동행스토어 현관 앞
	10'	시찰	'온기창고' 시찰 및 주민과의 소통 - 시설 및 진열물품 시찰, 물품구매 체험(주민함께)	안내(유호연 소장)
14:30~14:50	20'	폭염대책 현장방문	건강취약자 여름나기 물품전달 및 쪽방촌 방문 - '온기창고' 조끼 착장 및 쪽방주민 가정방문 - 에어컨 가동 및 전기요금 지원사항 점검 등	쪽방촌 및 가정 방문

※ 가정방문 대상 주민 현장 취재(인터뷰) 지원 가능

붙임 2 쪽방주민 수요맞춤형 동행스토어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주민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현행 선착순·줄세우기 물품배부 방식 개선 및 일률적 배분으로 인한 자원낭비, 현금화 사례방지책 필요
- 쪽방주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는 ‘생필품 지원’(71.0%)으로 쪽방상담소 효율적인 물품배분시스템 구축 필요 <2022 쪽방거주자 실태조사>

< 현행 후원물품 배부의 문제점 >

“선착순 벽보에 따라 긴 줄을 섰다. 벽보를 보지 못한 사람이나 힘없는 노약자는 매번 소외된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작가 조문호)

“자선단체의 줄 세우기는 주민들을 통제하고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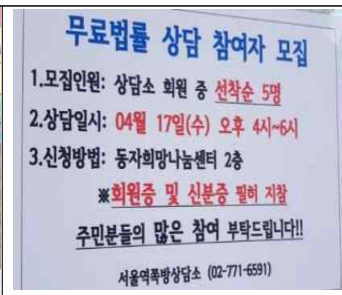
(한겨레 21, 공짜 짜장면과 천원짜리 식사('21. 3. 8.))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그거 나르고 배분하는 일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요. 스스로 '푸드마켓 직원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쪽방상담소 직원)

□ 추진경위

- '22.10. 6. 쪽방촌(주민) 지원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63호>
 -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 사업 발굴 : 2개소 신규 설치('23년)
- '23. 3. 28. 쪽방촌 맞춤형 푸드마켓(2개소) 설치 계획 수립
 - 동자동쪽방촌 민간건물 임차 및 돈의동쪽방촌 쪽방건물 매입(검토) 설치 계획 수립
- '23. 4. 3.~ 동자동쪽방촌 민간건물 임차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 용산구 후암로57길 3-14 1층(135.21㎡, 약 41평)
- '23. 7. 14.~ 돈의동쪽방촌 쪽방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 행 : 선착순·줄세우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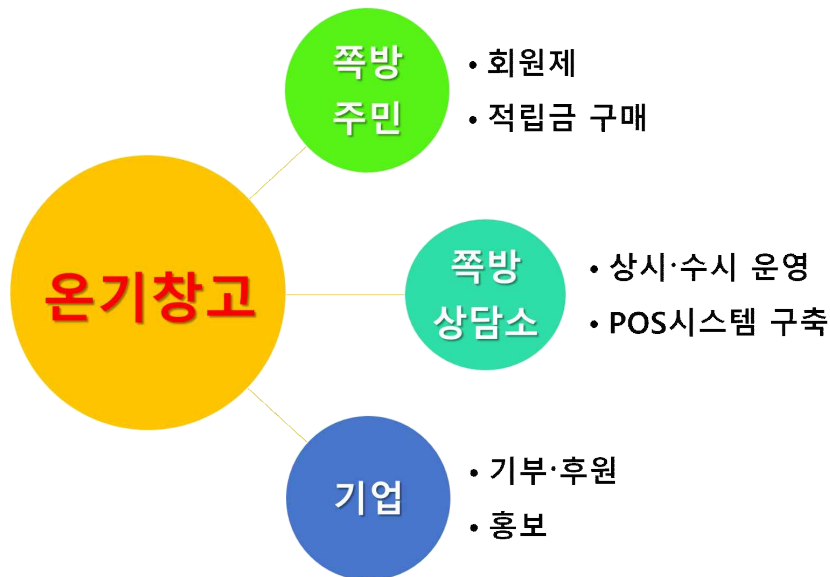


<개 선 : '온기창고' 내부>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 2개소 신설
- 대 상 지 : 서울역·돈의동 쪽방촌
- 운영주체 : 서울역·돈의동 쪽방상담소
- 물품확보 : 쪽방촌 지정 기부물품, 기업후원 발굴(일부)
 - ※ 세븐일레븐 개소당 월 1천만원 물품후원, 세븐카페, 세븐팜 후원협약('23.7.20.)
- 이용대상 : 쪽방상담소 회원등록 쪽방주민 한정
- 운영방식 : 상시 개관(주 3회 이상), 수시 이용(일 6시간 이상)
- 소요예산 : 584백만원(건물임차비, 리모델링 공사비, 운영비 등)

수시로 필요를 채우고 정을 나누는 동행스토어



□ 향후 계획

- 굿윌스토어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지향 및 법·제도 정비 추진
 - 사업자등록, 수익금 처리, 일자리 창출 등 운영 기반 마련
 - 기부 및 재활용품 매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노숙인·쪽방주민 자활 지원

붙임 3 서울역쪽방상담소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시설 현황

- 사업위치 : 용산구 후암로37길 3-14, 1층(약 135㎡)
- 시설 현황
 - 공간구성 : 창고, 진열대 및 계산대, 회의실, 카페 등
 - 기 자 재 : 대형 냉장·냉동고, pos(전자식 금전등록기), 커피메이커 등
- 운영 계획
 - 운영 인력 : 전담 매니저, 공공일자리 참여자 2명, 사회복지무요원 1명
 - 운영시간 : 주 3회(월/수/금, 9~18시) ※ 주민 수요와 참여에 따라 운영 횟수 확대 예정
 - 운영방식 : 상담소 등록 쪽방주민에게 회원(적립금)카드 발행하여, 한도 내에서 월 10만점 만큼 구매 가능
- 사업 현장



Q.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는 무엇입니까?

A.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수요맞춤형 물품배분 시스템입니다.

온기창고에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물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쪽방촌 주민들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지급 대상은 쪽방상담소 등록회원으로 회원(적립금)카드를 발급받은 주민입니다.

Q. 동행스토어의 최대 장점은 무엇입니까?

A. 쪽방촌 주민들이 생필품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협소한 공간, 인력 부족, 물품 부족 등의 이유로 선착순 배부 방식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다 보니, 줄을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줄을 설 필요 없이 동행스토어에 들러 적립금 한도 내에서 물품을 가져가면 됩니다.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물품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원물품에 대한 효용감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Q. 동자동쪽방촌 이외에 동행스토어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A. 동자동 이외에 종로구 돈의동쪽방촌에 9월초에 온기창고 2호점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후 1년 정도 운영 후, 평가를 통해 나머지 3개 지역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